

## 국제성모병원, 엠랩과 '컴파운드 케이' 인체적용시험 협력

항암 화학요법 치료 간암·대장암·폐암 환자 피로도 개선 평가

김정일 기자 | jikim@yakup.com 기사입력 2019-03-26 16:07



▲ 왼쪽부터 김영인 국제성모병원장, 엠랩 구의서 대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은 지난 25일 (주)엠랩(대표 구의서)과 '컴파운드 케이'의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는 인삼을 발효시켜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의 체내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인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항

염,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진, 혈행개선, 피로 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과 엠랩은 컴파운드 케이를 주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씨케이 30'을 이용해 인체적용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컴파운드 케이이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간암·대장암·폐암 환자의 피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엠랩 구의서 대표는 "컴파운드 케이는 항암치료 및 항암치료 부작용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질로 이번 공동 연구를 계기로 신약개발을 향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엠랩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와 (주)엠진바이오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바이오기업이다.

이 기사 주소 <http://www.yakup.com/news/news.html?mode=view&nid=228708>

인쇄하기 취소

약업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